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15일 노조 임시대대 ... 진조위 “감정평가 결과와 건설비 차이 크지 않아”

금속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육연수원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노조는 12월 15일 노조 회의실과 전국 거점 회의실에서 5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연수원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건과 특수목적기금 사용 승인 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장혁 위원장 당선자 등 12기 노조 임원선거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진상조사위는 4월 14일부터 11월 19

일까지 벌인 연수원 시공사 공사비 추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조위는 공사비 감정평가결과와 시공사 건설비용의 차이가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수원 진조위는 증액 공사비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조위는 노조·조합원 요구, 강화한 소방·안전법규 반영, 지역주민·관청의 요구, 유례없는 폭우 공사 지연·배수관 용량 증대 등이 사유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교육연수원을 금속노조답게 제대로

유지·보완하면서, 노동운동 간부를 양성하는 훌륭한 연수원이 되도록 12기 집행부에게 충실히 인계하겠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12일,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속회해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83%의 찬성으로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네 가지 내용을 의결했다.

금속노조 12기 부위원장 선출 마쳐

일반명부 박경선(서울), 함재규(기아차), 손덕헌(현대차), 박찬일(충남) 당선

금속노조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12기 임원선거 일반명부 부위원장 결선투표를 벌여 부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찬반을 묻는 식으로 진행된 이번 결선투표로 기호 2번 박경선(서울지부 개별), 기호 3번 함재규(기아차지부 소하지회), 기호 4번 손덕헌(현대차지부 2공장), 기호 5번 박찬일(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이 금속노조 12기 일반명부 부위원장 당선을 확정했다.

당선자들은 기호 2번 박경선 80.9%(95,996표), 기호 3번 함재규 78.0%(92,595표), 기호 4번 손덕헌 77.3%(91,703표), 기호 5번 박찬일 70.0%(83,017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결선투표에 재적조합원 182,495명 중 118,669명이 참여했다.

지난 1차 투표에서 일반명부 기호 1번 홍지욱(경남지부 개별), 비정규직 할당 김동성(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여성 할당 권수정(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부위원장은 당선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12기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16년 해고 끝장낸다”

금속노조 ‘돌아가자 현장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결의대회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 금속노동자들은 16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한국지엠 최장기 해고자 진환 조합원의 복직을 시작으로 한국지엠 해고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가 12월 14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돌아가자 현장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 경남지부, 인천지부,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해고자 우선 채용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 자본을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3년 동안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해고했다. 2019년 부평공장에서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2020년 창원에서 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2021년 5월 창원 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25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금속노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을 더하면 한국지엠 해고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에서 “해고자 복직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금속노조가 반드시 해결할 문제이다”라며 “한국지엠 자본은 진환 동지 복직 약속부터 지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1기 위원장 임기 내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지만,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금속노조답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영수 12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당선자는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복직을 시켜야 한다”라며 “16년 해고 끝장내고 진환 동지가 공장으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노조 사수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복직 투쟁 결의를 적은 별 모양 쪽지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곳곳에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2020년 1월 한국지엠 자본은 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와 ‘창원·부평공장 결원 발생 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라고 합의했지만,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11월 부평공장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최장기 해고자인 진환 조합원의 복직을 추진했다. 한국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뜻을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